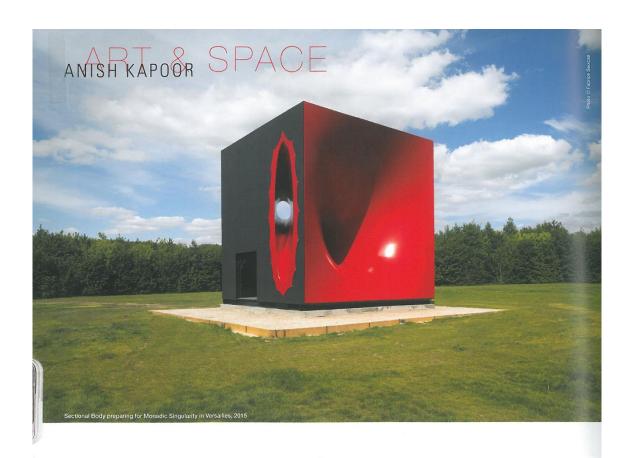


ART & SPACE Anish Kapoor

November, 2016 I 김은지 기자

page 1 of 6





Sectional Body preparing for Monadic Singularity in Versailles, 2015





Descension, Installation view at Versailles, 2015

Dirty Corner, Installation view at Versailles, 2015

Anish Kapoor's works use pioneering technology to address absence and void as sites of potential. One of his most popular work is the highly polished reflective steel wall <C-Curve>, which circles back on itself like the letter C. Linear geometric design to look down on the vista of manicured lawns, broad parterres, ornamental lakes and exquisite rows of boxed hedges. Its convex side distorts in reflection the space, which appears as a bulging, rounded form; its concave side turns everything, including our own mirrored selves, upside-down. Kapoor makes all visitors flitting across his work which is multiplicity and inversion, reality and illusion, individual and collective identity. 'Dirty Corner', the provocative sculpture, is suggestive of 'a queen reclaiming the domain'. The 60m long and 10m high sculpture is a Cor-Ten steel tube with a weathered patina like bronze; it begins with a goblet shaped entrance, and gets narrower and narrower, darker and darker, tapering to a closed tunnel. Stones, earth and excavated ground around the sculpture are painted in parts a powdery deep red, and carved with gashes like giant wounds. Nearby, the whirlpool 'Descension' is a pool of dark water sucked by a vibrating motor into a black vortex. 'Sectional Body preparing for Monadic Singularity' is a hollow, house-sized red cube with wall piercings connected internally by tubular pathways like wormholes.

아니쉬 카푸어의 작품은 선구적 기술을 활용해 부재와 공허를 잠재력의 영역으로 표현된다. 글자 C 형태로 곡선을 그리는 고광택 강철 벽체 (C-커브)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다. 선으로 된 기하학적 디자인은 잘 손질된 잔디, 넓은 화단, 아름다운 호수, 정교하게 배열된 회양목 울타리 등 주변 풍경을 내려다보도록 배치됐다. 볼록 면은 공간을 둥글고 돌출된 모습으로 일그러뜨리고, 오목 면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 이에 카푸어는 모든 관람객을 황홀경에 빠지게 하거나 다양성과 반전, 현실과 환상, 개인과 집단 정체성을 아우르는 그의 작품 사이를 날아다니듯 돌아다니게 만든다. 파격적인 조형물 '더러운 구석'은 '자신의 영토를 되찾고 싶어 하는 여왕'을 시사한다. 길이 60m, 높이 10m의 조형물은 구릿빛처럼 풍화되어 녹이 슨 내후성 강판관으로 제작됐으며, 술잔 모양의 입구에서 시작해 폭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어두워지면서 폐쇄된 터널까지 점점 가늘어진다. 돌과 흙 그리고 조형물 주위의 굴착 지대에는 곳곳에 가루처럼 진홍색 페인트가 뿌려졌고, 거대한 상처처럼 보이는 흠집이 새겨졌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소용돌이치는 '하강'은 검은 소용돌이 속 진동 모터에 의해 움직이는 검은색 연못이다. 또한, '궁극적 특이성을 위한 단면 구성'은 웜홀 같은 원통형 길이 벽을 뚫고 지나면서 내부가 연결되는 주택규모의 속이 빈 붉은색 입방체이다.





Installation view at 'Anish Kapoor: Today You Will Be In Paradise', Gladstone Gallery,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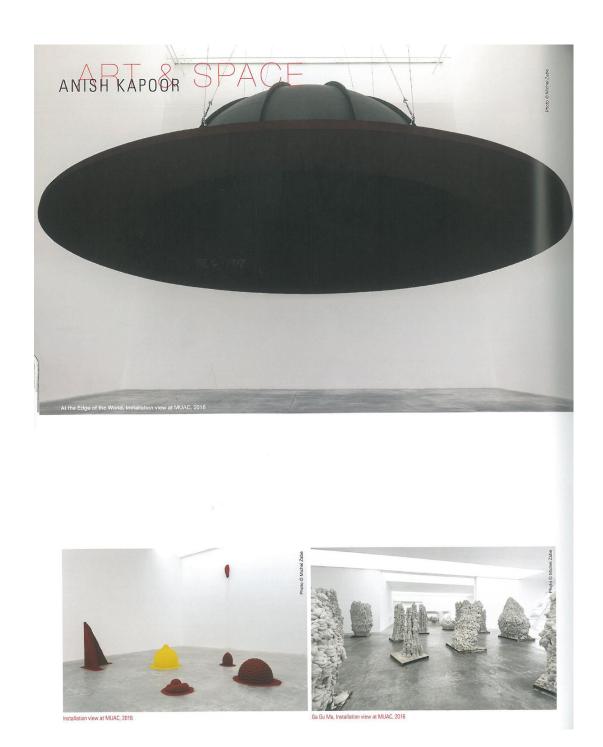
She Wolf, Installation view at Gladstone Gallery, 2016

The exhibition at Gladstone Gallery features a series of reliefs and paintings composed of tumultuous layers of red and white silicone and paint, as well as one monumental earth and resin sculpture on a marble pedestal. At once intimate, imposing, and refined, Kapoor's work dually confronts and expands conditions of matter, perception, and metaphor. One of the work appears visceral and daunting, reminiscent of mangled, bloody flesh-like forms. In these panels the corporeal forms seethe with raw, vertiginous, lurching effect, as shapes come into form as both contingent matter and restless proposition.

Kapoor's sculpture is characterized void, insisting on contrasts, experimenting with new materials, while sometimes taking the risk of a certain violence in the result. Attracted to everything that concerns the body, he is interested in the hidden aspect of objects, in the negative of shape. The viewer is sometimes invited to penetrate within sculptures, which are then similar to architectures, to experience their interiority and to see the surprising spaces hidden from outside revealed.

글래드스톤 갤러리에서의 전시는 복잡한 다층 구조를 이루는 붉은색과 흰색 실리콘, 페인트 그리고 대리석 받침 위에서 웅장함을 드러내는 휴과 합성수지 조형물 등으로 구성된 부조 및 회화 작품을 선보였다. 친숙함, 웅장함, 세련미가 공존하는 카푸어의 작품은 존재, 인식, 은유의 한계와 직면하면서 확장된다. 어떤 작품은 적나라하고 심하게 훼손되어 피 묻은 신체를 떠옮리게 한다. 이러한 패낼 속 육체 형태는 우연적 존재와 불안정한 관념의 형태로 접근해 거칠고 어지러우면서 위태로운 분노를 일으킨다.

또한, 카푸어의 조형 작품은 비움, 대조적 구성, 새로운 재료를 활용한 실험 정신 등으로 정의되며, 때로는 결과에 어느 정도의 폭력성을 동반하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한다. 신체와 관련된 모든 것에 매료된 그는 오브제의 감춰진 측면, 형태의 부정성에 관심을 보인다. 관람객은 종종 조각품을 건물처럼 관통해 지나가면서 그 내부를 점험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놀라운 공간을 보게 된다.







Hysterical Sexual, 2016

Lady Chrysanthe, 2016

Anish Kapoor has proposed new strategies of production that involve art in the complex relations between sensation and thought, the oriental and the occidental. Each of his works reveals the paradox of a particular poetic specter recognizable to perception insofar as it appeals to the world of the senses by means of certain features. This poetic specter is not determined by a correspondence with the reality of the object or with the case of sculpture as such, since his production reveals an amazing skill of proportion, density, scale and equivalence that foregrounds raw material as the reality of his work. His works might be defined as a poetic approach to the rigorous study of space, material and form, in which the real, the symbolic and the imaginary are fused to the point where an original genesis of the sculptural object is encountered. The work of Anish Kapoor is presented here as a point of departure for reflection on the possibilities afforded by the creative act, where materiality expands the horizons of reality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impossible emerges as truth.

Anish Kapoor: Anish Kapoor was born in 1954, Mumbai, India, and travelled to England in 1973 where he studied sculpture at Hornsey College of Art and then Chelsea College of Arts. He represented Britain in the 44th Venice Biennale in 1990, winning the Premio Duemila. He was also awarded the Turner Prize, Britain's most prestigious art award, in 1991. His seminal projects include large site-specific installations at the garden of the Palace of Versailles (2015), Cloud Gate (2004) at Millennium Park in Chicago and Marsyas (2002) at the Tate Modern in London.

아니쉬 카푸어는 감각과 사고, 동양과 서양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서 예술을 다루는 새로운 접근을 보여왔다. 그의 모든 작품에서 인식할 수 있는 특정한 시적 영감의 역설은 인위적 장치를 통해 감각의 세계로 전해졌기 때문으로, 이러한 시적 영감은 현실 속 오브제나 조형물의 속성, 그러한 존재와의 관련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는 탁월한 비례, 밀도, 비율, 원자재로 작품의 현실성을 보여주면서 등가구성을 표현하는 놀라운 기술로 그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공간과 소재, 형태의 정밀한 연구를 위한 시적 접근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조각같은 오브제의 본래 기원에 점하기 위한 현실, 성정, 상상의 융합이 이뤄진다. 아니쉬 카푸어의 작품은 창작이라는 행위 속에 담긴 가능성에 대한 사색의 출발지이고, 그 지점에서 물성이 현실 세계의 지명을 확장하고 불가능의 표성이 실체화되어 나타난다.

편집: 김은지 기자, 사진 제공: 국제 갤러리 ***저작권은 아니쉬 카푸어에 있다.

아니쉬 카푸어: 아니쉬 카푸어는 1954년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으며, 1973년 영국으로 이주한 뒤, 혼지 예술대학교와 런던 첼시 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1990년 제44회 베니스 비앤널레에 영국 대표 작가로 참여해 '프리미오 듀얼라'를 수상한 그는 이듬해 영국의 권위 있는 예술상 '터너 프라이즈'를 받으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2015년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 전시된 대규모 설치 작품이 있으며,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선보인 마르시아스 (2002)와 시카고 텔레니엄 공원의 구름 문 (2006) 역시 참 알려져 있다.